



宇宙時代와 醫學徒의 使命

大韓醫學協會長 明 柱 完

20世紀—하던 科學機械文明의 尖端의 境地를 말하는 代名詞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宇宙時代를 뜻하기도 한다. 前世紀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漫畫 속의 꿈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모두 實現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時代的 感覺을 描破하고 있는 20世紀의 所謂 宇宙時代는 곧 高度로 發達된 物質文明에 影響을 입은 人間의 生活手段 혹은 樣式에 急激한 變化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思考 觀念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人間의 生活背景이 過去의 集團的 地域的 範疇를 벗어나 世界에로 向하는 國際性을 띠우기까지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發達된 各種交通手段, 廣域의 “매스콥” 등의 役割은 오늘날 各國의 產業革命의 意慾을 안겨다 주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처럼 尙今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있는 低開發國家의 經濟復興에의 발돋움이 되었다.

글라이더는 오늘의 超音速 젯트機로 變했고 寓話같은 飛行접시는 人工衛星으로 變하여 우리들 머리 위를 24時間 晝사이 없이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마이크로 胃鏡이 人體內를 徘徊하면서 患部를 찾아내고 있고, 殺菌劑에서 抗生物質時代로 옮겨왔다. 또한 生體의 保存을 위한 冷凍術도 成功했다.

日常用具 중에서 라디오가 小型트랜지스터로, 나가서는 微視的인 IB回絡(2미리크기)의 驚異的인 것으로 變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確實히 超人間的인 科學의 頭腦가 發揚되는 宇宙時代임에 틀림없다.

要件대 醫學도 科學의 一分野로서 例外없이 急激한 變遷과 發展을 이룩하였다. 다른 모든 科學의 分野와 步調를 같이하여 日就月將하는 世界의 醫療水準은 그 頂上에로 向하면서 오늘날 人間의 疾苦를 最大로 輕減시키고 있다. 前世紀까지만해도 人間에게 恐怖와 죽



<宇宙散策>

음을 가져다 주던 可恐할 惡性傳染病 혹은 難治病들이 現代醫學에 의해 하나씩 退治되므로서 그 그림자는 衰退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從來의 治療醫學이 療法과 藥物등의 發達로 豫防醫學의 境地를 漸次 擴大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列學할 수는 없으며 各種 傳染病的 豫防 백신이 發見되고 難治病인 癌 등 特殊 漸病的 研究 및 臨床分野가 착착 開拓되어가고 있음은 놀라운 일로서 이러한 現代醫學의 惠澤이 人類에게 베풀어져 人間의 死亡率이 낮아지고 平均壽命이 延長되고 있다.

이와같은 科學 및 醫學의 趨勢에 따라 혹은 날로 넓혀지는 生活背景 속에서 우리 醫學徒들의 使命이 무엇인가는 自明한 바 있다.

科學徒로서 眞理를 探究하여 人類社會福祉에 寄與한다는 것이 오로지 醫學의 使命이다. 모든 疾病에 挑戰하여 좁게는 國民保健을 위하고 넓게는 韓國의 醫學을 世界에 誇示해야 할 時點에 이르고 있음은 오늘날 世界的인 政治 社會 情勢가 말해 주고 있는 터이다.

科學의 孤立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世界的인 文物의 交流는 그 어느 때보다도 活潑한 樣相을 띄우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各分野에서 海外와의 紐帶를 緊密히 하고 있으며 더우기 醫學部門에서의 交流는 눈부신 바 있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醫療水準이 學術 및 技術 兩面에서 共히 世界水準에 比肩할 만한 質的인 發展을 꾀해 온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發展的 要因을 充分히 지니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大體的인 傾向으로 眞理探究에의 意慾 혹은 創意性이 欠如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要는 그 原因이 우리나라의 經濟力이 脆弱한 데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決코 어떤 研究를 成就시키는 데 個人的 財力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國家가 保障해야 할 것이나 尙今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現實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떻든 以上の 論據 (宇宙散策을 하고있다)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 醫學徒들이 處해 있는 位置는 莫重하며 그 使命 또한 重且大한 바 있다.

複雜多難한 國內外的 政治 社會 情勢下에서의 醫學의 變遷도 急激한 바 있어 不斷히 海外의 最新 醫學 知見을 吸收하는 동시에 모든 難關을 克服하면서 創意的인 研究에 努力해야 할 것임을 끝으로 強調한다.



<人間을 다스리는 刀圭>